

회 의 록

- 회 의 명 : 2026년 6월 시청자위원회
- 일 시 : 2026. 6. 18.(목) 17:00
- 장 소 : 순천관옥나무도서관
- 출석위원 : 강문식 위원장, 박성주 위원, 박병현 위원, 조애숙 위원,
천지연 위원, 안인수 위원, 박소정 위원, 박경숙 위원,
김종은 위원, 이지호 위원, 천현진 위원, 이현규 위원
(이상 12인)
- 불참위원 : 박종일 위원, 이지호 위원(이상 2인)
- 여수MBC : 대표이사 사장, 경영심의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
보도센터장, 콘텐츠센터 편성제작팀장(이상 5인)

2026년 6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발언내용

○ 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회의 장소를 마련하고 준비해 주신 박병현 위원님과 박소정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우리 지역도 새로운 변화의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공약과 지역 현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지역민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차분히 지켜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체계의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산업, 문화, 교육, 생활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지역 언론의 세심한 관심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수MBC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아내고, 공영방송으로서 책임 있는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6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 대표이사

오늘은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듣겠다는 말씀만 드리려 했는데,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개표방송을 빛내주신 천현진 교수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두 차례 출연하시고 세 번 방송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수MBC 대표로 와서 벌써 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여러 회의 중 시청자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1~2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시청자위원님들이 어느덧 오랜 지인처럼 느껴지고, 늘 회사 곁에 계시는 분들처럼 생각합니다.

처음 왔을 때는 시청자위원님들이 새로 오시고 임기를 마치고 나가시는 것을 자연

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오늘 두 분이 사실상 마지막 자리에 함께하고 계셔서 매우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지역에서 계속 뵙겠지만, 오랜 인연을 떠나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관계가 깊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시청자위원회 회의 때마다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저희가 바깥의 시청자로부터 들어야 할 목소리, 듣기 어려운 목소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저희 보도와 프로그램 안에 녹아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시청자위원으로서는 임기를 마치시지만, 앞으로도 지역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신 편성제작팀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 콘텐츠센터장

오늘은 이복현 콘텐츠센터장께서 방송 재허가 업무가 많아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편성제작팀장 이동신입니다. 콘텐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TV와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은 차질 없이 제작·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공석이 길어지면서 작년 10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발표가 지연되었는데, 이번에 「1948 그녀들」이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어제 수상식이 있었고, 다른 방송 관련 시상식에도 출품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여수 밤바다 버스킹 클라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로트클라쓰」에서 해당 내용을 녹화하고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서는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오도 비렁길 편은 현재 후반 편집 작업 중이며, 9월 초 방송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가장 큰 업무 중 하나는 방송 재허가 신청서 제출입니다. DTV, 라디오, FM, 표준FM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7월 주요 계획입니다. 정규 프로그램 제작은 계속 이어갈 예정이며, 7월 8일 수요일 서울에서 MBC 본·계열사 편성 책임자 회의가 있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전 회의 의견 반영 사항입니다. 먼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라디오 전망대에서 선거 기획 인터뷰, 뉴스브리핑, 이슈체크, 정치한판, Y토론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기후위기와 재난보도 강화를 요청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예방 방송과 국민 행동요령을 수시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역 MBC 네트워크를 통해 재난방

송과 뉴스특보 체계도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어바웃 우리동네」 프로그램 기획 강화를 요청해 주신 부분은 제작진과 함께 계속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지난번 TV 편성표 IPTV 정보와 관련해 말씀해 주신 부분도 반영했습니다. 네이버 편성표에는 「로컬퍼스트 뉴스데스크 820」 관련 정보가 수정되어 노출되고 있으며, 케이블TV와 IPTV 편성표도 수정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치 사항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박광수 보도센터장님의 설명을 들겠습니다.

○ 보도센터장

6월 주요 취재·보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항목은 지방선거, 지방선거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보도, 석유화학·철강 이중 산업위기, 여수세계섬박람회, 그리고 고흥반도의 최대 관심사인 우주산업 관련 기획 취재와 보도였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형배 후보 당선 소식과 선거운동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취재·보도했습니다. 동부권이 주요 표심의 핵심 변수였다는 점도 보도했으며, 선거 이후에는 여수·순천·광양 등 광양만권 주요 시단체장이 모두 교체됐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동부권에서 무투표 당선이 매우 많았습니다. 전남 전체로 보면 66명 정도가 투표 없이 당선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석유화학·철강 산업위기도 꾸준히 보도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서는 행정·전산 통합 문제, 그리고 동부청사의 실질적 기능 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오늘 기준으로 D-80입니다. 약 두 달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가장 큰 쟁점은 주행사장이 7월 정도에는 실제 행사장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지입니다. 현재 참가국과 해외 단체는 약 29개국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실제 해외 참가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7월 주요 보도 계획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입니다. 동부권이 어떤 비중과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다만 이를 권역별 이해 다툼의 관점이 아니라 권역별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집중 취재·보도하겠습니다. 특히 주청사 문제가 큰 관심사입니다. 어제 민형배 당선자가 동부청사를 주소지로 두겠다고 밝히면서 전 권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앞으로 꾸준히

취재 · 보도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당선인들이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인수위 활동을 근거로 조명하겠습니다. 산업위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발표된 4조 6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 철강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큰 흐름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곧 D-60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5일 개막해 11월 4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장 준비 상황, 참가국 변동 여부, 피서 성수기 지역 관광 수용태세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회의 의견 반영 사항입니다. 이번 6월 보도는 단순히 지난 시청자위원회 의견을 반영했다기보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인사이트를 기획 뉴스에 적극 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공약을 유권자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정리해 달라는 의견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 5월 26일부터 시 · 군별로 기획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특히 젊은 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도 반영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다수의 시민을 인터뷰해 생동감 있게 보도했고, 이 내용을 간추려 개표방송에서도 활용했습니다.

무투표 당선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두 차례 가랑 리포트를 제작해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보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발생 뉴스 보도를 이어가는 한편, 6월 말에서 7월 초쯤 출입처를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 전담 역할을 하는 기사를 배치해 보도 강도를 높여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보도센터에서 다양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의견을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용우 방송사업센터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사업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초 주요 업무로는 지난주 6월 13일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연극 「노인의 꿈」을 2회 공연으로 진행했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회의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일 전국 MBC 사업 책임자 회의가 대구MBC에서 열립니다. 제가 내일 대구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7월 주요 계획입니다. 정채봉문학상은 7월 말까지 공모 작품 접수를 마감하고, 이후 예심 준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공연 분야에서는 하반기 공연을 검토 중입니다. 9월 뮤지컬 공연과 연말 연극 공연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잘 준비해 올

해 하반기 문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 여수MBC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청취 소감과 함께 위원 여러분들의 제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주 위원

마지막 자리라고 하니 참 섭섭합니다. 지난 4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돌아가면서 발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MBC를 시청하지 않으면 발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MBC를 최대한 많이 시청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난 4년 동안 제게 생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수MBC에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정말 귀담아듣고 반영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록 자체도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의 말을 정말 귀담아 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시청자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처럼 여수MBC를 생각해 주시고, 여수MBC도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그동안 4년 동안 여수MBC 시청자위원회를 위해 많은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늘 저희 곁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병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현 위원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 준비와 관련해서 저는 따로 도움을 드린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박소정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살면서 긴장할 일이 많지 않은데, 시청자위원회에 와서 짧은 지식으로라도 무언가 말씀드리려 하다 보니 학창시절 시험을 보는 것처럼 긴장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수술할 때보다 이 자리에 나올 때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수MBC가 조금 더 젊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나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인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젊은 남성층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저 역시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온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젊은 세대가 보수화되는지, 왜 중국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일본은 자주 방문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궁금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결론은,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진보적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인드는 진보적일 수 있지만, 특정 정책이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투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젊은 세대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가 급여화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비급여를 줄이는 방향은 바람직할 수 있지만, 대책을 마련해놓고 추진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들도 도수치료를 하기 위해 오랜 시간 수련하고 배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급여화가 이뤄지면 사실상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지역에서도 상당수 물리치료사들의 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정책이 추진되면 젊은 세대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수MBC도 젊은 세대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위원회 구성에서도 20대, 30대 젊은 시청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위원이 한두 명 정도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청자위원회 의견이 보도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능,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보도센터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여수MBC 유튜브 구독자를 검색해 보니 여수MBC 유튜브가 10만 명 이상이고, MBC뮤직플러스도 상당한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자 콘텐츠이자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분야인데, 위원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진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최근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밤에 LP판을 듣는데, 그것이 영화한 편을 보는 것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광조 씨의 노래 「사랑을 잃어버린 나」를 여러 가수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부르면 같은 노래라도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하나하나가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트로트클라쓰」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트로트 가수가 부르는 아이돌 노래, 트로트 가수가 부르는 팝송이나 헤비메탈처럼 조금 더 파격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능은 보도처럼 정치적 제약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더 과감한 변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젊어지는 MBC, 다양한 MBC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다음은 조애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애숙 위원

며칠 전에 후배가 뉴스 제보를 MBC에 하면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청자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면 반영이 빠르다고 느꼈는데, 일반 시청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7월 1일 전남광주통합시가 출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부권과 달리 동부권은 국회의원들도 초선이고, 여수·순천·광양 시장 후보들도 초선인 경우가 많다 보니 전략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염려됩니다.

이럴 때 동부권이 통합시의 단순한 하부 기관이 되지 않도록 여수MBC가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여순광행정협의회에서 나온 안건들이 구체적으로 보도되고, 핵심 의제들이 통합특별시 예산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여수MBC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지역 경제 구조 변화, 산업 다각화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여수·순천·광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서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고민하는 기획 보도나 정기적 프로그램 편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선인 공약도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미 보도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다음은 천지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연 위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 간략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제안드리겠습니다.

행정통합 이후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적 요소들이 많이 부각되었다면, 이제 인수위가 꾸려지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주요 공약을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약을 보면 다른 후보와 차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극단적인 공약도 있고, 반대로 꼭 필요한데 빠진 부분도 보입니다. 따라서 주요 공약뿐 아니라 반드시 이어가야 할 사업들이 균형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보가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엮어지거나, 꼭 필요한 사업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있다 보니 행정통합 이후 고등교육기관의 통합이나 인재 양성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습니다. 산업이 광주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처럼,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인수위나 관련 논의가 광주 소재 대학 중심으로 치우쳐 가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동부권 산업이 중요하다면 순천대학교의 위치와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여수대와 전남대 통합 사례처럼 지역 대학들이 흡수되는 방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두루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또 기후변화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쪽 지역에 있다 보니 기후변화를 더 체감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보도도 중요하지만,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일반 시민의 행동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이끌어내는 방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가치 소비, 업사이클링, 탄소발자국, 푸드 마일리지 등과 관련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면서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환경적 가치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의 변화가 기업을 움직이고, 정부 정책과 규제 마련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대학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관련 다전공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한 전공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환경이나 플라스틱 문제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식품산업도 온실가스 배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해결 방법 역시 산업별로 달라야 합니다.

관련 전공 교수들이 함께 책을 냈고, 세종도서 우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K-MOOC 동영상 강의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내외 강의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미국 버지니아텍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기업을 움직이는 소비자와 일반 시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 차원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여수MBC가 순천대학교의 관련 자원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인수 위원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하시니 상당히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시청자위원으로서 어떤 역할과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주신 부분도 와닿았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반영해 시청자위원회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안건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6·3 지방선거는 다소 잡음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 여수MBC가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봅니다.

다만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지역 언론의 역할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거 이후 지방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후보자의 개인 역량이나 리더십보다 정당의 후광을 입고 당선된 경우도 많

습니다. 따라서 당선자들이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수국가산단을 포함한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해 제시했던 공약과 비전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최근 젊은 세대가 한쪽으로 몰리는 정치 구조에 대해 불만을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언론은 새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청사를 어디로 할 것인가 같은 하드웨어적 문제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지만, 사실 하드웨어보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논리는 전남대는 광주광역시에 있고 전남도에는 의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광주와 전남 서부권은 사실상 하나의 권역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동부권이 상대적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합니다. 행정통합 관련 논의의 무게 중심이 서부권과 광주 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 유치도 단순히 낙후된 지역을 우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전후방 산업과 지역 기반 경제가 갖춰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동부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할을 여수MBC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 박소정 위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귀하다고 느꼈습니다. MBC는 이런 시청자 의견이 있어서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수MBC에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 왔습니다. “여수MBC여, 전남광주 통합 시대 전남 동부권을 지탱하는 단단하고 깊은 뿌리로 서 주십시오. 여수MBC여, 우리 지역의 일그러진 공동체를 다시 바로잡는 유일한 시작점을 다시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런 저질 선거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의 후진성과 후보자의 기준을 보면서 전남 동부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전남 동부 지역이 특히 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삶을 마무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다시 운동화를 바꿔 신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순천, 전남, 호남을 생각하면 정말 암담합니다. 그러려면 여수MBC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송곳같이 날카로운 비판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지역민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토론할 수 있는 지역 정서를 만드는 데

있다고 봅니다.

각 분야의 시민 리포터를 만들어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MBC에도 인력과 취재 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목소리를 담고, 특히 젊은 세대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결국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핵심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을 기본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교육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보면서 교육계에 대한 언론의 감시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감 후보가 민주당 선거운동 현장에 파란색 옷을 입고 함께 다니고, 반대 쪽은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계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MBC가 전남 동부 지역을 지탱하는 단단하고 깊은 뿌리로 다시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경숙 위원님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경숙 위원

이 동네 옆 동네가 저희 동네입니다. 제가 이곳에 자주 오는데, 뒤에 있는 커튼을 평소에도 봐왔지만 오늘은 더 남다르게 보입니다. 여러 연결망이 이어져 있는 꽃처럼 보입니다. 위에 있는 꽃도 실제 있는 꽃이라고 들었습니다. 눈을 뜨는 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까 박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시청자위원회에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빠지고 청년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들어와 청년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 시절에 무엇인가 경험한 것이 이후에도 계속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그런 기회를 많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후위기 전담 기사를 배치한다는 소식도 매우 반가웠습니다. 순천에서는 이전 시장님이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다녀오면서 생태도시를 위한 중요한 방향으로 생태문명 전환 부서를 만들고, 생태문명 전환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에코칼리지를 운영했습니다.

에코칼리지에서는 프랑스 철학자 브뤼노 라투르의 행위자-연결망 이론과 가이아 이론을 바탕으로, 지구가 모든 생명체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관점을 다뤘습니다. 예를 들어 순천만의 흑두루미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식의 논의입니다. 사람만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생명도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물의 의회를 통해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계에 대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저도 한 번 참여해 보았는데 매우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순천 연향동 소각장 문제를 주제로 사물의 의회를 진행했는데, 저는 대기와 땅이 되어 지금 땅이 어떻게 느끼는지, 대기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상상하고 몸으로 말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역지사지의 가장 강력한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넘어, 지식으로는 닿을 수 없는 삶의 경지를 몸으로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잘 확산되면 사람들의 중심이 함께 이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꼬막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르신들은 “꼬막이 있어서 내가 여덟 남매를 다 키울 수 있었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꼬막이 지금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80~90세 어르신들이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플라스틱이 갯벌에 가득해서 살 수 없다” 고 말합니다.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다면 사람들의 생활 태도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코칼리지에서는 올해 9월쯤 순천만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사물의 의회를 전국적 행사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천시민들의 인식 저변을 넓히기 위한 강연회와 사물의 의회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수MBC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숙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오늘 말씀은 위원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 김종은 위원

전남CBS는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조수미 공연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여수MBC는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거 관련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포스코 쪽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여수산단 쪽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는 더 세심하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수시 SNS 서포터즈로 오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섬박람회 주행사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총주맨이 와서 유튜브를 찍었을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있었습니다. 잘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만 교통 문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입구 자체가 사실상 한 방향으로 되어 있어 불편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비교하거나 그때의 기대감으로 방문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섬박람회라는 성격을 감안하고, 지역에서 열리는 공원형 행사 정도로 기대를 낮추고 가면 오히려 즐겁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유화학과 관련해서는 최근 저희 회사가 이익을 본 측면이 있습니다. 싸게 원료를 사서 비싸게 제품을 팔 수 있었던 구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이 끝나면서 상황이 반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원가가 100~12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7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탱크에 저장해 둔 원유와 운송 중인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재고 손실이나 환차손 우려가 큼니다.

추가로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정부가 공장도 가격과 주유소 가격을 묶어두면서, 저희가 대략 1조 원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돈을 벌어도 욕을 먹고, 돈을 잃으면 경영을 잘못했다고 욕을 먹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후 관련 전문 기자 배치는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LNG 발전소와 관련해 3산단에서 6개의 LNG 발전소 건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5개 업체는 전기를 판매하는 형태이고, 저희는 자가 소비 형태입니다. 그런데 기후에너지 관련 부처에서 탄소중립을 이유로 LNG 발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미 약 2,800억 원 정도를 들여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탄이나 석유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가기까지는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징검다리가 LNG라고 생각합니다. LNG까지 막으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자리 잡기까지 10~15년 동안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보도센터장님과 자세히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박성주 위원님과 박병현 위원님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대표이사

섬박람회와 관련해 여수MBC가 어떤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도와 콘텐츠 쪽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센터 편성제작팀장

콘텐츠 쪽에서는 대규모 공연이나 행사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콘텐츠 관점에서 섬의 가치와 미래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섬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수MBC가 보유하고 있는 섬 관련 콘텐츠를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이를 통해 붐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30 정도가 되는 8월 초부터 저희가 보유한 섬 관련 콘텐츠, 주로 다큐멘터리 중심의 콘텐츠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른 콘텐츠와도 결합해 박람회 시작 전까지 매일 방송할 수 있는 블록 형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금오도 비령길 특집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섬박람회 관련 기획을 더 다양하게 가져가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습니다. 저희는 콘텐츠 기업인 만큼 보유하고 있는 섬 자료를 보여드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바웃 우리동네」를 통해서도 행사 시작 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꼭지들을 준비하고, 박람회가 시작된 이후에는 현장 상황과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레귤러 프로그램 내 아이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기획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계속 기획 중입니다. 다음 달에는 조금 더 풍성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이지호 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면서 저희 미술관도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주시립미술관이 앞으로 어떻게 통합되거나 역할을 나눌 것인지가 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과 경제 통합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의 통합도 한편으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광주 분들이었고, 광주가 처음부터 점령군처럼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주가 이겼으니 따라오라는 식으로 느껴졌고, 저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외부자의 시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더 분명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인수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어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대부분 광주 쪽 분들이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제가 거의 유일하게 참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이미 ACC, 광주비엔날레, 시립미술관 등 문화 인프라가 매우 많다는 점을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트페어 등 문화산업, 예술작품 유통과 소비 기능까지 광주로 가져가려는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수를 제안했습니다. 여수엑스포장을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미 튼튼한 구조물이 있고, 바다라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며, 주차 등 기반 환경도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 유통과 소비 기능은 여수가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전남에는 강진, 해남 녹우당 등 토착민의 뿌리 문화와 한국미술의 뿌리라고 할 만한 자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전남의 문화 자원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전시나 행사, 책 등으로 확장해 전남 전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남광주 통합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의 과정에서 잘못하면 모든 것이 광주로 갈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광주 쪽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수MBC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천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현진 위원

이번 한 달 동안 지역의 중요한 변화들을 MBC를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보도 계획과 반영 내용들이 잘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수위 활동이나 의장단 독식 논란 등 선거 이후 지역 정치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보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과거 인터뷰 영상이나 발언들을 활용해 공약과 책임 문제를 계속 점검하는 보도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과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과 경제 통합, 청사 위치도 중요하지만 문화와 교육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 보도도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유치와 관련해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문제를 보도할 때 실제 지역 노동자, 청년 구직자, 지역 기업, 지역 대학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함께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빈집 문제 등 지역 밀착형 보도도 주목해서 봤습니다. 다만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 행정 조치나 제도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후속 보도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프리뷰」 코너도 좋게 봤습니다. 지역의 행사와 이슈를 정리해 주는 형식이어서 유익했습니다. 다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묶으면 시의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디오도 많이 듣습니다. 「박성언의 음악식당」은 이동하면서 들곤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팟캐스트 형태로 재가공해 다시듣기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수MBC 프라임 유튜브 채널을 보니 AI 토크 콘서트 ‘딸깍’에서 이호성 교수님 발언을 쇼츠로 제작한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넘겼더라고요. 화제성과 이슈가 결합되면 충분히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획을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주요 플랫폼이 유튜브인 만큼, 콘텐츠가 계속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이런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청년 크리에이터들과 협력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확산시키는 방식도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도센터장

「이슈 프리뷰」는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표이사

「박성언의 음악식당」의 경우에는 디지털 음악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라

디오 방송용 음악 저작권료는 지불하고 있지만, 디지털 유통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다른 디지털 플랫폼으로 함께 제공하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다음은 이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규 위원

저는 석유화학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니 안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기간 중 서울 서소문 고가차로 철거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오세훈 후보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철거 공사 시작 당시 안전하게 하겠다는 이벤트를 했던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보도를 보면 대부분 “이럴 줄 알았다”는 식입니다. 이것도 문제였고, 저것도 문제였고, 오래전부터 방치됐다는 식의 후속 보도들이 이어집니다.

우리 사회는 큰 사고가 나면 항상 그런 식의 보도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선견지명이라기보다는 후견지명에 가까운 보도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보도들이 많은데,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도 안전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를 되돌아보면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최소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는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무시되거나 외면되면서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게 책임을 모두 지우고,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사고에 빚대어 하는 방식이 반복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교육, 금융교육, 안전교육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로 어느 정도 이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합니다. 보도에서도 안전을 좀 더 전문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우리 여수시는 관찰은지도 짚어봤으면 합니다. 산단에는 큰 차량들이 계속 다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도로처럼 보이지만 아래가 교량 구조인 곳도 많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대형 차량이 지나가면 도로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설계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합니다.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검과 관리는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수시의 기반시설 전반은 관찰은지,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한 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사측에서 답변이나 덧붙일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최근 순천대 의대 문제 등 서부권 중심으로 치우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도센터장

언론사 체계로 보면 여수MBC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꼭 권역을 이해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보면 권역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수에서 바라보는 생활권과 목포에서 바라보는 생활권은 다릅니다. 따라서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깨가 무겁다고 느끼는 이유는 현재 언론사 체계상 동부권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방송 매체가 사실상 여수MBC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지는 광주·전남 전체를 권역으로 두고 있고, 더 작은 단위의 풀뿌리 언론사들도 시 단위로 존재합니다. 물론 그 언론사들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문제, 통합 과정에서의 주청사 문제, 반도체 공장 입지 문제 등은 저희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이러한 보도가 잘못 비치면 지역 이해관계에 민감한 밥그릇 챙기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에게도 이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생활권의 지역적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방송사업센터장

저도 이지호 원장님 말씀처럼 통합시와 관련해 문화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의식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광주가 중심이 되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광주로 빨려 들어가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형태로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인 균형발전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논리 개발도 필요하고, 정서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끌 구심점은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광주로 쏠릴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와 솔루션을 찾아 미약하더라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순간 흐지부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습니다. 감정 싸움이 아니라 현실성 있고 설득력 있는 좋은 안을 가지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은 위원

예를 들면 그런 접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주는 지하철이 있고, 지하철 적자가 2조 원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수 입장에서는 도서민이 이용하는 여객선을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보전해줘야 한다는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동권이고 생존권입니다.

섬이 많은 목포나 신안 쪽과도 협업해, “광주는 지하철을 운영하듯 우리는 해상교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식의 공동 대응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균형추는 균형이 잡혀 있을 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는 140만 명이 넘는 도시이고, 순천은 28만 명, 광양은 15만 명 규모입니다. 단순한 인구 규모만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수MBC의 역할이 참 큼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역 현안과 방송 전반에 대해 의미 있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지역사회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전남광주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수MBC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이 앞으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박성주 위원님과 박병현 위원님께서 연임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함께 하시는 마지막 시청자위원회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그동안 시청자위원으로서 끝까지 소임을 다해주시며, 여수MBC와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참석자 모두 두 분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준비된 석식 만찬 자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두 위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6월 시청자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